



[산업] LG화학 美 루시드 車에 원통형 배터리 독점공급 06



Economy

| | | | |
|-------------|------------------|-----------|-----------------------|
| 코스피 | 2103.61 (+24.57) | 코스닥 | 656.95 (+17.66) |
| 금리 (국고채 3년) | 1.17 (+0.03) | 환율 (원-달러) | 1210.30 (-9.90) (25일) |

올 감사보고서 기한 연장

금융위, 증선위서 검토

중국에 자회사 둔 기업부터 대구·경북 기업까지 포함

〈단독〉 금융위원회는 26일 증선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연장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는 '노 액션 레터(N 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초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들만 대상이었으나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업지를 둔 기업들도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도보팅이나 법적인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라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자투표 역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주총 지원책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대구의료원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유완식 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주총까지 흔들리는 코로나 대관취소에 상장사 '멘붕'

코스닥 흑역사

〈中〉 주총대란 현실화

한국사이버결재·엑시콘 등 주총장소 대관취소 통보받아 새도보팅·전자투표 의견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최근 주총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 측으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우려로 '대관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총 장소를 다시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총 장소를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장소 변경 시 공사까지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주총 대란이 현실화됐다.

사업보고서 작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져도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소재 기업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이버결재, 엑시콘, 유니트론텍 등 코스닥기업이 주총 장소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주총 장소를 정하지 못한 기업도 다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총 행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 "다시 이사회 소집을"...상장사 난감 기업들은 주총 장소를 다시 찾아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들은 회사 내부에서 주총을 여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다.

문제는 다시 주총 장소를 잡는다고 해도 이사회 소집부터 정정공시까지 다시 해야 한다. 또 주주에게 우편을 보낸 기업들은 장소 변경을 알리는 우편을 또다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찮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대부분 건물 이 주총장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정 안되면 회사 내부에서 해야겠지만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좁은 장소에서 진행하면 감염 우려가 더 커서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의결권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시적으로 새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을 허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 감사보고서 작성 난항

주총장소를 구해도 또 다른 난관이 있다. 바로 감사보고서 의결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안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한창 바쁜 감사 시즌에 출장을 가지 못하고 문서 업무만 볼 수 있는 상태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법인의 감사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영지 기자



"이 난리 언제 끝날지"... 생필품 사재기

코로나 감염 불안감에 구매행렬 컵밥·라면·생수 등 판매량 급증 이커머스에서도 조기 품절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시작된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되더니 온라인까지 소비가 급증했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점 등이 겹치면서 전자 상거래 생필품 판매가 수배 가까이 늘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커머스는 주문량 급

증 품목들의 배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마트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신장률을 비교한 결과, 쌀 45%, 생수 20.5%, 라면 37%, 물티슈 16.6%, 즉석밥 23%, 통조림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성수점·킨텍스점·비산점·칠성점 등이 임시 휴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매출은 되레 늘었다.

롯데마트도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생필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컵밥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9% 늘었으며, 라면은 47.9%, 생수는 16%까지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온라인상에서도 생필품들은 조기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SSG닷컴의 생필품 판매 역시 급증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라면 판매가 전년 동기(2019년 2월 20일~24

일) 대비 343% 증가했고 통조림은 433.8%, 생수는 287.9% 신장했다. 또한, 즉석밥·레토르트·가정간편식(HMR)은 261.4%, 쌀은 241.1%, 채소류 193%, 화장지·물티슈 136%, 세탁·주방용품 95.7%씩 증가했다.

SSG닷컴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 측배송 주문 마감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3%선까지 상승했다. 특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주말 이후 전국 평균 주문 마감률은 99.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측배송 마감률은 전국 평균 80%선임을 감안하면 거의 20%가 더 늘어난 셈이다.

(3면에 계속)

/김민지·조효정 기자 kmj@

〈코로나19 관련기사〉 2~4, 6, L2~L7면

소비심리 급랭...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CCSI 96.9... 전월비 7.3p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MRE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서 메르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졌고,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월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5년 6월(-7.3포인트) 이후 4



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지수는 지난해 10월(98.6)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져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지표다. 장

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잡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기 전인 지난 10~17일 진행됐다. 앞으로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까지의 수치라고 보면 된다"며 "최근 심각해진 부분은 사실상(이번 조사에) 반영이 좀 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66), 향후경기전망CSI(76)는 전월 대비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떨어졌다.

/김희주 기자 hj89@